

# 재난의료 교육과정 표준화 ... 의료인력 재난대응력 강화해야

국회 토론회 윤종필·김학용 의원 주최 - 한국재난간호사회 주관

“표준화된 재난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해 의료인력의 재난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간호사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현수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장은 “표준화된 재난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해 국가 공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교육대상을 관련응급의료센터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혜경 한국재난간호사회장은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재난대응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실효성 있는 재난교육을 위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의료인력에 대한 보상과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대응 매뉴얼 개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조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재난대응력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재난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올해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

환자안전 위해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됐다.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말균대방포, 말균가운, N95 마스크 등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한 별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2016년 수립된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 3000원 수준)한다.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현실화되고, 올해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주혜진 기자 hjjo@

## 김수지 명예교수 첫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

국가 과학기술 발전 기여한 유공자 32명 중 유일한 여성

고(故)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첫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유공자는 지난해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과학기술인인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주관으로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후보를 공모하고 발표했다.

전문위원회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2명이 선정됐다.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고 이휘소 박사, 육종학의 선구자 고 우장춘 박사,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견인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보건의학자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치의학자 박노희 UCLA 교수, 한탄바이러스 발원자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선정됐다. 이 중 김수지 명예교수가 유일한 여성 과학기술유공자다.

2016년 타계한 김수지 명예교수는 간호교육자이며 이론가로 간호교육-연구-실무를 통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정신보건사업 모델 구축, 호스피스 확산 등에 힘썼다. 특히 ‘사람 돌봄(Interpersonal Caring)’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지역사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으며, 이 공로로 국제간호협회가 주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다.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초대 학장으로 봉사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한국간호과학회장,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과학기술유공자들의 업적과 발자취는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발표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정확한 사실규명과 의료인력 등 업무환경 개선 우선돼야

대한간호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의료인력 등 제반 업무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1월 12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지 1월 12일로 27일이 지났다”면서 “먼저 소중한 어린생명을 잃고 눈물과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립수사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상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부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간호사 3인을 포함한 의료인 5인을 입건한다고 했으나 위와 같은 감염 추정 가능성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발표는 향후 의료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결

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열악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병상 증가에만 치중해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하며, 초극소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의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감염관리 중요성을 간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치매노인 위한 인지훈련도구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약화예방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를 개발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곡물, 과일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와 실제적인 놀이형태로 개발됐다. 치매정도, 문제행동, 학력 등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라 도구 선택이 가능하며 활용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인지기능 등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됐으며, 집단 및 개별 인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인지훈련도구 e-Book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약화예방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체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하단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의료소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2266-7677	보건간호사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림간호사회 (02) 716-903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080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